광주일보 Weekend

1 제17647호 2판

2007년 1월 6일 토요일

"신년드라마 붙어 보자"

'신년 드라마 격돌'

방송 3사가 새로운 드라마를 일제히 선보이며 '드라마 명가'를 꿈꾸고 있다. 지난해 '소문난 칠공주' 등으로 방송 3사 중 가장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KBS, '주몽' '궁' 등으로 '드라마 왕국'의 명성을 조금씩 회복한 MBC, '하늘이시여' '사랑과 야망' 등 주말 드라마에서 강세를 보였던 SBS의 신작 리스트를 소개한다.

▲'무주공산'을 차지하라

지난해 수목드라마는 '절대강자'가 등장하지 않던 시간대다. 방송 3사는 1주일 간격으로 새로운 드라마를 선보이면서 진검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3일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KBS의 '달자의 봄'은 서른 세살 노처녀가 여섯살 연하의 바람둥이 남자와 알콩 달콩 엮어가는 사랑 이야기로 채림과 이민기가 주연을 맡았다.

MBC는 1주일 늦은 10일 '궁S'를 선보인다. 가수에서 변신을 시도한 세븐과 허이재·강두·박신혜 등 신인들이 대거 캐스팅된 '궁S'는 자신이 황실의 후손임을 모르고 살던 중국집 배달부가 엉겁결에 황위계승서열 1위가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SBS는 17일 '외과의사 봉달희'로 시청자를 만난다. 영화배우 이범수가 16년만에 처음으로 안방 나들이를 하며 이요원이 타이틀롤을 맡았다.

▲'주몽'의 아성을 넘어라

월화드라마는 시청률 40%를 넘나드는 '주몽'이라는 거대한 산에 가로 막혀 SBS와 KBS 모두 지난 한해 참패를 거듭했던 시간대다. 8일 방송되는 KBS의 '꽃피는 봄이 오면' 검사를 꿈꾸는 만년 고시생의 인생 역전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박건형과 이하나·박시연이 주연을 맡았다.

'눈꽃'의 뒤를 이어 15일부터 방영되는 SBS의 '사랑하는 사람아'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다섯 남매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 한은정·김동완·홍경민·박은혜 등이 출연한다.

▲베테랑 VS 신인

MBC와 KBS는 주말드라마와 일일드라마에서 맞붙어야 할 운명. 반격을 노리는 MBC는 최진실과 강수연이라는 연륜있는 연기자를, KBS는 한효주와 윤정희라는 신인탤런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소문난 칠공주'로 주말 안방극장을 독차지한 KBS는 6일부터 후속 드라마 '행복한 여자'를 내보낸다. 초보형사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하늘이시여'의 윤정희와 김석훈이 주연을 맡았다.

MBC는 주말연속극 '누나' 후속작으로 2월 강수연 주연의 '문희'를 선보인다.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자식을 떠나보내게 되는 등 파란 많은 삶을 겪으며 복수를 꿈꾸는 여성의 이야기가 그려진다.

일일연속극 '나쁜 여자 착한여자'는 최진실의 복귀작. 전업주부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겪게되는 혼란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이재룡, 성현아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KBS는 15일부터 한효주·박해진 주연의 '하늘 만큼 땅 만큼'을 방영한다.

그밖에 2001년 마약 파문으로 6년간 발이 묶여있었던 황수정의 복귀작인 SBS의 '소금인형'(12일), 5년만에 돌아온 이미연과 윤계상이 호흡을 맞춘 SBS의 '사랑에 미치다'(2월3일) 도 관심을 모은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래하는 순간순간 가슴 벅차요"

솔로 데뷔 브라이언

"미국에 계신 어머니(연명순·53)가 18살 때 국내에서 솔로 음반을 내고 예명으로 활동하셨어요. 언젠가 청소하다 어머니의 레코드판을 옷장에서 발견했는데 '애~ 창피해'라며 감추시더군요."

부모 몰래 미국에서 오디션에 도전, SM엔터테인먼트에 발탁됐고 1999년부터 플라이투더스카이(환희·브라이언)란 팀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브라이언(본명 주민규·26)이 솔로로 데뷔했다.

"어린 시절 꿈을 이루는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를 누구나 갖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것만도 순간순간 가슴이 벅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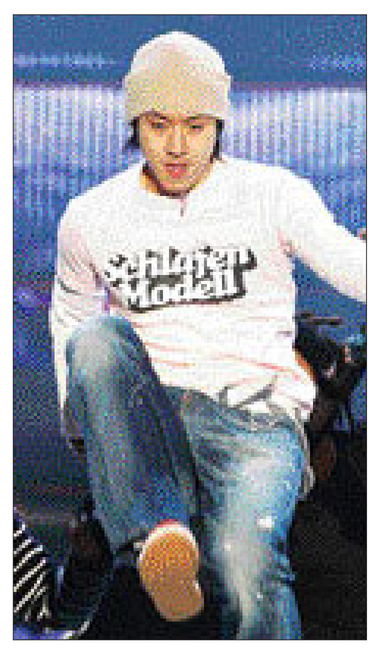
브라이언은 미국 LA 태생으로 뉴욕·뉴저지 등지서 자랐다. 아버지는 "넌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 한국말을 해야 한다"며 매로 다스렸고 덕분에 그는 꽤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현재 각종 쇼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친구들이 이젠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미국에선 술 먹은 다음 날 맥주와 피자로 해장했는데 지금은 선지해장국을 먹거든요(웃음)."

솔로 1집 '더 브라이언'은 플라이투더스카이 때의 음악에서 기름기를 쫙 뺐다.

"솔로 음악은 타이틀곡 '가지마'를 비롯해 '일년을 겨울에 살아' 등 어쿠스틱한 느낌의 팝 발라드가 주를 이룹니다. 플라이투더스카이 음악이 크림소스 스파게티면 솔로 곡들은 고소한 김치볶음밥이죠."

그는 짝꿍 환희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했다. "우린 형제 같다"며 "언젠가 '우리가 게이(Gay)'란 말이 돌더라. 그래서 일부러 티격태격한 적도 있다. 4월엔 두 사람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늘 고맙다"고 말했다.



10 BOX OFFICE

영 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박물관이 살아 있다	21만 3천600	287만 1천800
2	미녀는 괴로워	18만6천200	380만 4,천900
3	조폭 마누라	11만700	87만2천200
4	로맨틱 홀리데이	6만2천	117만 5천
5	중천	3만900	140만 8천
6	007 카지노 로얄	4만9천200	91만 3천900
7	해피 피트	4만9천200	60만9천900
8	올드미스 다이어리	3만9천	60만 1천500
9	수면의 과학	2천871	2만 3천
10	미스 리틀 선샤인	2천400	2천400

〈자료제공:필름 2.0〉

T V

(단위:%)

순위	제 목	방송국	시청률
1	열아홉순정	KBS1	39.9
2	소문난칠공주	KBS2	34.9
3	특집 주몽완전정복	MBC	29.9
4	황진이	KBS2	26.8
5	MBC연기대상(2부)	MBC	25.2
6	연예가중계	KBS2	19.1
7	방송연예대상(2부)	MBC	18.9
8	무한도전	MBC	18.8
9	대조영	KBS1	18.6
10	KBS연기대상(2부)	KBS2	18.5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 목	장 르
1	괴물	드라마
2	미션 임파서블3	액션
3	가문의 부활	코미디
4	잔혹한 출근	스릴러
5	캐리비안의 해적 : 망자의 함	액션
6	라디오 스타	드라마
7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드라마
8	몬스터 하우스	애니메이션
9	천하장사 마돈나	코미디
10	비열한 거리	액션

〈자료제공:씨네타운〉

가 요

순위	제 목	가 수
1	마리아	김아중
2	바람만 바람만	김종국&SG워너비
3	잔소리	더너츠
4	까만 안경	이루
5	사랑이 다 그런 거니까	왁스
6	거리에서	성시경
7	소리쳐	이승철
8	사랑…후에	혜성&린
9	가지마	브라이언
10	사랑가	SG워너비

〈자료제공:벅스뮤직〉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皓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팩스 222-8005〉
편집부	2200-629	광고국	2200-521 〈팩스 227-9500〉
정치부	2200-616	디자인	2200-536
경제부	2200-617	사업2부	2200-552
사회1부	2200-618 〈팩스 222-4267〉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2-0195〉
사회2부	2200-619 〈팩스 227-0118〉	판매부	2200-551 〈팩스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26	서울지사	02-773-9331 〈팩스 02-773-9335〉
여론매체부	2200-628		
체육팀	2200-627		
사진부	2200-690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